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

—제주문학사를 중심으로—

양 영 길*

차 례

1. 머리말
2.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 1) 지역문학사의 개념
 - 2) 지역문학사 서술의 필요성
3. 지역문학사의 서술 방법
 - 1) 지역문학사의 인식 방법
 - 2) 지역문학사의 서술 대상
4. 지역문학사 서술상의 과제
5. 맺음말

1. 머리말

1983년 정부에서는 '지방문화육성'책을 내세워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 출판된 부산소설가협회에서 발행한 『소설 열네마당』(부산문예사, 1983) '책 머리에'를 보면 지방 소외의식이 얼마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나 팽배해 있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국은 있으되 한국문화란 없다. 오직 서울문화가 있을 뿐이다. 어디 문화뿐이라만, 오죽하면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을까. 인구의 35%, 문화시설 55%, 문화행사 72%, 출판 94%가 서울에 밀생해 있다. 가히 <서울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그닥 넓지도 않은 같은 땅덩이 안에 살면서도, 다만 서울사람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세금 물면서도 나머지 65%의 국민들은 내팽개쳐진 문화적 더부살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방문화육성」이란 말이 자주 오르내린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이란 물론 서울을 제외한 타지방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서울은 한국의 한 지방이 아니고, 지방 위에 군림하는 별천지임을 확실하게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쓸쓸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했어야 할 일들을 뒤늦게 시작하고 있는 데도, 그것을 두고 무슨 큰 경사나 만난 듯 반가와 하는 사람들과 또 무슨 대단한 시혜라도 주는 듯 당당해 하는 사람들이다.

좀 길게 인용한 감이 있지만 한국의 제2의 대도시인 부산지역 소설가들의 불만이 이 정도였다는 것은 당시의 한국문학사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8년 뒤인 1991년 4월 15일부터 지방자치체가 실시되고, 이 해 6월에는 『문학과 지역』이 창간되었다. 여기에 실린 전국공동지역문학협회의 「지역문학·문화운동 선언」문을 보면, 지역문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우리는 지역문화운동에 수평적 평준화운동을 주도해 나갈 것이며 자율적 문화공간 위에서 지역과 지역의 만남의 고리를 형성하여 각 지역 간의 고유정서와 특수한 삶의 양식을 문학으로 형상화하고 문화적 봉건성이나 종속성을 탈피, 민주성을 회복하여 통일에 이르는 민족공동체적 방법을 탐색해가고자” 한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또 “지역문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의

개체적 의지, 문화기류 형성에 개체적 의지로서의 삶의 정신을 집단 논리에 종속시키지 않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적 연대감과 개성, 또는 향토성을 큰 고리로 형성 민족공동체로 끌고 나가 보편적인 통일의 원리에 도달"해야 한다고 그 방법론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는 소외의식이라는 소극적 대응은 볼 수 없고 지역문학을 개척해 보려는 적극적 대응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4년 뒤인 1995년에는 『사람의 문학』 가을호와 『실천문학』 겨울호에 각각 「지방 자치시대의 지역문학」, 「지방 자치시대, 지역문학을 다시 본다」라는 특집으로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어서 2년 뒤인 1997년 8월에는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위한 『지역문학연구』가 창간되었다. 이 책 창간호 「머리글」에는 “지역문학은 문학제도의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현실이다. 문학은 지역문학이라는 터 위에 살아 있을 때, 그 창작과 향수뿐 아니라, 평가까지도 생생한 현실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과 대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역문학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 지역인 경우, 김병택의 「지역문학의 존재방식과 그 전망」(『한국현대시인론』, 국학자료원, 1995), 김영화의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제주국제협의회와 제주시가 공편한 『바다와 섬, 문학과 인간』(도서출판 오름, 1999), 김동윤의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탐라문화』 제20호, 1999) 등에서 지역문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위에서 지역문학과 지역문화사에 대한 인식은 유동적·유연적 개념에서 매우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은 학문적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지역문학과 지역문화사의 개념과 성격, 올바른 인식 방법, 지역문화사 연구의 의의 등 지역문화사 전반에 걸쳐 학제적으로 체계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역문학에 대한 연구를 문화사 서술 방법에 대한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문학사 방법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문학사를 전망할 수 없고, 그 연구 또한 부유할 뿐 안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문학사의 성격, 연구의 필요성, 올바른 인식 방법 등을 바탕으로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지역문학사 서술의 성격

1) 지역문학사의 개념

그러면 지역문학사란 무엇인가. 지역문학사가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지역문학'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야만 그 논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역'¹⁾에 대한 개념은 차치하고서도 '지역문학'이란 개념이

1) '지역'과 '지방'에 대한 개념과 성격에 대하여 오규환은 "지역은 인위적 경계보다 자연적 특성에 따라 구획된 영역"이며, "지방이란 말은 중앙정부가 소재하는 수도에 대하여 그것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오규환, 『지방사 연구: 그 이론과 실제』(『현대의 역사이론』, 한길사, 1993), 323쪽.)

또 전경수는 "지역이란 개념은 물렁물렁하고 유동적인(loosely structured) 軟性概念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전경수,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8쪽.)

또 지역이나 지방이란 용어 대신에 '향토'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하가·노보루(芳賀 登)는 향토를 일곱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①태어난 고향으로서의 향토, ②감정으로서의 향토, ③직관(直觀)행동으로서의 향토, ④행정구분으로서의 향토, ⑤전승문화로서의 향토, ⑥취락으로서의 향토, ⑦생활근거로서의 향토(하가·노보루(芳賀 登) 저. 『地方文化的 保全』(呂博東·小林幸夫 共譯)(과학교육사, 1985), 88~89쪽.) 그러나 이 '향토'라는 용어는 '지역'이나 '지방'과는 달리 소재나 주제와 관련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문학과 관련하여 이주형은 "지방이란 말은 중앙 혹은 서울이라는 것의 상대개념이 되어서, 지방문학이라는 말자체가, 대상이 되는 문학의 열등성 내지 주변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문학이라 할 때 서울의 상대개념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지방화 시대의 지역문학(좌담)』, 『사람의 문학』, 도서출판 사람, 1995. 가을, 14쪽)고 좌담에서 정리하고 있다. 또 같은 좌담에서 이하석은 "지역문학이라는 말에는 지방문학의 개념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지역문학이라는 것은 반대로 비교적 수평적인 하

그다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²⁾ 그 지역 작가가 쓴 모든 문학작품들을 해당 지역의 지역문학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지역을 배경으로 씌어진 문학작품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진정한 지역문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학작품을 작가에 따른 분류와 체제에 따른 분류로 나누었을 때,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면, 그것을 그 지역의 진정한 지역문학으로 한다고 해도 역시 만족할 만한 대답이 되지는 않는다.

필자가 단순히 '지역문학'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문학사'의 차원에서 살펴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당 지역 작가가 쓴 모든 작품을 그 지역문학사에 편입했을 경우 중앙문학사의 지방판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외지인이 그 지역을 배경으로 쓴 문학작품을 그 지역문학사에 편입했을 경우에도 그 지역에 대한 삶의 총체성이 본질과 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 수용이 불가피하다.³⁾ 그러나 이런 논리로 많은 작품들을 배제해 버리게 되면 지역문학사의 빈곤을 초래하는 불만이 있게 된다.

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앞의 좌담, 15쪽)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들은 1991년부터는 '지역'과 '지방'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문학 단체들이 행정적 구획 단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과 '지방' 중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인용문 등에서만 '지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의 개념은 '자연적·생태적' 영역을 바탕으로 한다.

- 2) 이주형은 '지역문학'의 개념을 네 가지 경우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전국에 대한 공간으로서의 지역문학이라는 개념', '두 번째 중앙에 대한 변두리의 개념', '세 번째는 일정한 특수성, 주체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지역의 문학', '네 번째로 순전히 애항심에서 발로되어 사용되는 경우' 등으로 정리('지방화 시대의 지역문학(좌담)', 14~15쪽)하고 있다. 여기서 첫째와 셋째의 경우를 결합하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개념의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선별적 수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고 피상적으로 접근이거나, 시대 상황 때문에 왜곡된 접근이 많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또 전원적이거나 한정적인 태도도 그 지역의 삶의 총체성을 외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역문학사에서 참고할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지역문학'에 대한 성격이나 범위를 '지역문학사'의 관점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역문학사'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논하기 전에 '문학사'에 대한 문제부터 제기하면, 대부분 문학사를 통시성에만 얽매어 인식하는 문제다. 그러나 문학사라는 것은 통시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시성은 문학사 서술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며, 문학사 서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학사의 모습인 '상(像)'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학사 서술은 그 지역문학의 모습을 제대로 찾아내고 드러내어 이를 바탕으로 문학사상(文學史像)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역문학사에서 지역문학다운 문학작품을 제대로 찾아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작가 중심으로 인식하여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면 지역문학사상을 드러내기는커녕 호고 취미가로서의 문학사 서술로 전락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게 되며 중앙의 절대적인 규정력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문학사적 인식은 문학작품으로 창작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담당자들이 살았던 역사, 살고 있는 현실, 살아갈 전망, 그리고 그 속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정서와 역사를 바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의 바탕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문학 작품으로 창작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창작 모티프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역문학'과 '지역문학사'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사 서술의 가장 근본적인 지향점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망을 그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문학사에 대한 인식은 '파머콘(pharmacon)'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말하는 이 특성은 '약'도 되지만 '독성'도 품고 있다는 극단적인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⁴⁾. 따라서 역기능에 해당하는 지역문학사 인식의 '독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관건이 된다. 즉 지역문학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

4) 김경일 편,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문화과학사, 1999), 63쪽.

우 지역문학사를 이끌어 나갈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열등의식과 선망의식의 근간인 중앙지향적 심리를 조장하여 진정한 지역문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은 물론 진정한 지역문학사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뿐이다.

지역문학사 속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힘이 숨쉬고 있다. 거센 바람이나 대한(大旱)·호우와 같은 자연의 힘과 중앙의 억압과 탄압, 그리고 착취의 힘에 견디고 살아남는 방법으로써의 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학사라면 “적어도 지역적 정신과 지역적 삶의 원리가 적용된 문학”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역문학사를 역사서술의 수단인 통시성을 극복하고 공동체 사관(史觀)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근대화 패러다임과 발전이론에서 탈피하고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지역의 생활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생동하는 문제(living problem)를 골간으로 파악된 문제중심의 역사(histoire probléme)를 통하여 지역문학사의 문학사상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하는 적극적인 이론 구축이 시급하다. 지역문학의 든든한 뿌리는 독자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생명력을 제대로 인식하는 이론 구축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론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한 때의 유행적 성향으로 인식하는 회의적 시각을 일소하기 어렵고 지역문학의 활성화와 생동하는 지역문학사를 지속시키는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론 정립은 본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현지 연구로부터 발견되는 것이며, 실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은 반드시 환류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한다. 환류를 통하여 그 지역의 문학 담당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때, 지역문학사는 인식에 이르지 못하던 것들로부터 하나 둘 본연의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역문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도종환, 「21세기, 지역문학의 전망(좌담)」, 『청주문학』 제10호, 2000), 116쪽.

2) 지역문학사 서술의 필요성

그러면 지역문학사는 왜 서술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한국문학사 서술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⁶⁾ 이러한 문제점들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앙 문단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사와 엘리트 중심 문학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한국 문학사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⁷⁾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문학사 서술이 설명적·교육적 서술에 그쳐 문학사의 심층과 장기지속적인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한국 문학사상의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그 극복 방안으로 “여러 지역문학사 서술을 통하여 각 지역의 정서를 비롯한 문학사의 장기지속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설명적·교육적 서술로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문학적 현상에 치우쳐 있는 문제에서 탈피하여 탐구적·논의적 서술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⁹⁾해야 한다. 이는 문학사의 근원을 중심으로 하는 서술, 문제 중심의 문학사 서술을 뜻하는 것이다. 지역문학사야말로 문학사의 근원이자 심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문학사는 중앙 문단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사 서술에 대한 방법론적 반성의 계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문학사는 그동안 방법론적 활성을 잃고 메마른 박물학 정도로 밀어낸 과거 사실을 비교·실증적으로 접근하는 실증주의에서 탈피하여,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사를 미래와의 관련하에 전망”¹⁰⁾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지역문학사의 위상이 정립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지역문학 연구는 호사가들이 비전문적이고 비학술적인 활

6) 양영길,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 연구』(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8). 137~144쪽.

7) 위의 글, 139쪽.

8) 위의 글, 142쪽.

9) 위의 글, 141쪽.

10) 위의 글, 139쪽.

동으로 말미암아 학문적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편협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에서 벗어나 지역문학의 문제를 파악하고 성찰하는 연구를 통하여 다양성과 복합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지역문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주체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된 “연구의 관행들이 특정 지역에 대한 피상적 이해를 조장하고 지구적 쟁점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불가능”¹¹⁾하게 만들면, 문학사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지역문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사의 지하수”¹²⁾라는 말이 있다. 지역문학사에도 이러한 복류(伏流)하는 역사가 우리들의 인식 저편에서 약동하고 숨쉬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지하수’를 펴 올리는 인식이 없이는 지역문학사의 순수성이 배제·축소되고 그 인식방법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서울 중심주의의 환상’이니, ‘서울 중심의 지적 편협성’이니, ‘중앙의 권위주의적, 패권주의적인 문학사’라느니 하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문학사 인식 방법의 핵심은 이러한 ‘문학사의 지하수’를 펴 올릴 필요성에서부

11) 김정일 편, 앞의 책, 10쪽.

12) 하가·노보루(芳賀 登)는 “역사의 지하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흙탕물(泥水)도 지하수가 될 때 여과되어 정화된다. 민중의 생활, 민중의 윤리도 마찬가지이다. 생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투, 생산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지혜나 윤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과되어 역사의 지하수로서 복류(伏流)하고 있다. 그것은 언젠가 필요하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민중의 살아가는 지점으로서, 민중의 에너지의 참모습으로서 펴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민중 자신은 그 지하수를 펴 올릴 수원지(井田)의 소재를 알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는 무제한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는 때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역사의 지하수, 바꾸어 말하자면 감춰진 지혜와 윤리의 지속성을 지식인이 알아차릴 때, 민중과의 사이에 새로운 결합, 새로운 신뢰관계가 생겨나리라는 것은 틀림없다.

(…) 그들은 민화(民話)라던가 민요·전설·민예(民藝) 기타를 표층문화(상층 문화)에 대한 기층문화라고 생각하고, 정점(頂點)에 대한 저변(底邊)의 사람들이 애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하가·노보루(芳賀 登) 저, 『地方文化의 保全』 (呂博東·小林幸夫 共譯)(과학교육사, 1985). 154~155쪽)

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문학사의 서술 방법

1) 지역문학사의 인식 방법

그러면 지역문학사는 어떻게 인식하고 서술할 것인가. 지역문학사는 시대론적 발전론적 인식에 함몰되어버린 한국문학사상을 공간론적 인식으로 전환하여 지역문학사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론적 발전론적 인식의 근간은 세계사의 보편성에 있으며, 공간론적 인식의 바탕은 지역의 특수성에 있기 때문이다. 근대화 이론으로 대변되는 발전론적 인식은 모든 국면을 경제적 발전과 변동을 그 척도로 하고, 전통과 근대를 양분하여 불연속성을 초래하고, 직선적 상승을 부추기고, 발전사관의 도식적인 적용 등을 통하여 우리 생활의 본질을 강제해 왔다. 이러한 발전론적 인식이 안고 있는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학사라는 공간론적 인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기존의 인식 방법을 해체하고 새로이 구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인식 방법상의 문제들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지역문학 연구가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문학의 원형이 지역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것을 찾고 회복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이나 의식적으로라도 강조”¹³⁾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박태일은 ‘우선 지역문학 연구는 지역문학의 인습을 물리치기 위해 오히려 지역 안에서 건전한 문화권력 갈등을 부추길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문학

13) 이하석, 「지방화 시대의 지역문학(좌담)」, 18쪽.

연구자들은 모름지기 결바른 주인 의식으로 한결같아야 한다. 셋째, 연구의 실천·현실의 쓰임새를 늘 맨 앞에 두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¹⁴⁾ 또 제주문학사에 관심을 기울여온 김동운은 지역문학 연구¹⁵⁾를 '첫째, 인간의 삶 자체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둘째, 지역문학 연구를 통해 민족문학(한국문학) 연구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그 문학사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지역민들의 정체성 함양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넷째, 현실적으로 한국문학을 더욱 다양화하고 그 범주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학사에 대한 인식의 단초는 좀더 구체화시켜 앞에서 제기한 지역문학이 아닌 지역문학사의 관점에서 인식할 때 그 방법은 윤곽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지역문학사를 인식하는 방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학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지향점은 문학사의 전망이다. 이는 지역문학의 '생산 → 전승 → 재생산'에 이르는 환류의 원리인 '생산원리, 전승원리, 재생산 원리'를 제대로 읽어 낼 수 있는 인식 방법론 개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서구적 기준의 발전 법칙에 경직되어 유연한 인식 시야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문학사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주제 지도를 만드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폭넓게 지역사이거나, 아니면 그 하위 개념으로 수난사¹⁶⁾ 이거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지역 정서의 생태, 가치체계, 세계관, 세계 인식 방법, 질서원리, 정념 등의 여러 갈래와 그 변화 추이를 추적하여 그 변동 원리와 그 지역의 구심성과 원심성을 밝혀낼 수 있어야 지역문학사 상(像)을 인식할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따라서 지역이란 개별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는 곳이므로 그 가치체

14)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 제2호, 1998). 128~130쪽.

15) 김동운,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탐라문화』 제20호, 1999). 48쪽.

16) 정치·경제적 수난사, 자연적 수난사, 문명사적 수난사 등

계를 문제삼을 수 있도록 해야함은 물론이다. 즉, 근대화에 의해 야기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문제들로 경직되어 있는 인식체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지역문학사 속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독자적인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향사적 관점에서 지역문학사를 인식하는 문제다. 특히 지역의 근·현대문학사를 서술함에 있어 중앙과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서술할 경우 앞에서 제기한 문제인 중앙의 규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 지역의 근·현대문학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유동문학을 비롯한 가사, 한문문학 등 근·현대문학 차원의 갈래체계로 진입하기 이전의 문학적 자산과의 영향관계를 바탕으로 인식했을 때는 단절적 인식을 극복하고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근·현대문학에 해당하는 작품에 와서 어떻게 정서적으로 변동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제주 지역의 탐라건국 신화가 육지와는 계통을 달리하고 있다.¹⁷⁾ 이런 것들이 제주지역에는 아직도 여러 측면에서 인식 방법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또 제주지역인 경우 노동요와 서사무가가 끊임없이 전승되고 재생산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생산 원리를 바탕으로 골동품적·박물관적 인식 차원으로부터 새로운 인식 방법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판소리는 민요와는 성격이 달라서 지역문학이 곧바로 한국문학으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민요나 서사무가, 그리고 판소리는 지역문학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민요나 서사무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주민요나 제주의 서사무가를

17) 최원식, 「지방을 보는 눈」, 『실천문학』 제40호, 1995. 218-219쪽에 의하면, “제주의 삼성혈 신앙은 땅 속에서 구멍을 통해 건국 영웅이 그것도 복수로 출현함으로써 육지와는 계통을 달리하고 있는 점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느님이 아들이 하강하는 태백산의 산정에 솟은 신단수가 일종의 남근 신앙이라면, 탐라 신화의 구멍은 여근 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멍 승배는 모계제의 흔적이 강한 폴리네시아의 여러 도서 지역에서 광범하게 확인되는 것이다.”고 소개하고 있다.

제외하고 논의할 수는 없다. 판소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제주나 영남 지역을 논의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정착 단계에 이르기 이전의 문학적 자산은 지역적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는 제주문학을 같이 거론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다. 이는 제주의 지역문학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문학사 인식의 방법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일반화와 추상화의 역할을 강조하여 특정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모든 시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에 대한 추구로서의 법칙정립적 접근이다. 이는 선부른 법칙 정립을 초래하며 향중양성의 수단으로 전략할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문학사 연구는 특정한 시공간의 맥락 안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통한 보편화의 방식을 추구하는 개성기술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특수성과 구체성을 강조하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하나 하나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지역문학사 인식의 첫 걸음은 지금까지의 인식지평을 재고하여 참신한 시각과 도전적인 문제의식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인식의 한계이다. 내 것만 보고 남의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자기 것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자폐성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상투적 지역성에 편승하여 진부해진다면 내재적 자기모순을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 배타적 지역문학의 울타리에 갇혀 폐쇄적 지역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결국 지역문학사는 지역의 역사적인 변용을 초래하는 주축성과 방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연구”(community studies)와 “문제중심 연구”(the problem approach)¹⁸⁾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문학사와의 긴장관계는 특수성과 보편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8) 미국의 사회과학연구협의회에서는 지역연구의 종류를 첫째, “공동체 연구”(community studies) 둘째, “지역학”(regional studies) 셋째, 국가연구(national studies) 넷째, “문제중심 연구”(the problem approach)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전경수, 앞의 책, 1999, 32쪽).

2) 지역문학사의 서술 대상 —지역·작가·독자·작품

그러면 지역문학사에서는 무엇을 대상으로 인식하고 서술할 것인가. 이 문제는 그 서술 대상인 텍스트를 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작가, 독자, 작품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그 지역은 인위적·행정적 구획이 아닌 자연적·생태적 구분이어야 한다. 생태적 구분은 행정적 편의에 의한 구획보다 안정된 구심력을 이루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이 구분이 모호하게 넘나드는 점이 있으나 제주도¹⁹⁾의 경우는 그 구획이 다소 자연스럽고 분명해지는 특징이 있다.

지역을 '표준형을 만드는 지역', '미개척지로서의 해석이 요구되는 타형형 지역', '소우주의 군집으로부터 이루어진 고립사회형 지역²⁰⁾으로 나눌 때, 제주지역은 '타형형 지역'과 '고립사회형'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지역일수록 지역문학으로써의 특수성이 숨쉬고 있을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타형형 지역과 고립사회형 지역에서의 지역문학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현실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으로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작가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김영화²¹⁾가 어느 정도 정

19) 제주도(濟州道)의 경우는 행정적인 구획이어서 추자도까지 포함되지만, 제주도(濟州島)인 경우는 자연적·생태적 구획으로 추자도를 제외하고 있다. 문학을 비롯한 문화·민속 전반에 걸쳐 추자도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20) 다카야 요시카즈(高谷好一)는 지역을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야노 토루 엮음, 『지역연구의 방법』(아시아경제연구회 옮김, 전예원, 2000), 64쪽).

21) 이에 대한 문제는 김영화가 「현대문학과 제주문학」(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편, 『탐라문화』 제15호, 1995. 257~258쪽)에 '제주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제주문화나 풍토를 몸에 익히고 공통의 기질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다.", "둘째는 제주에서 태어나 유소년시절을 제주에서 보내고 성년 이후 외지에 나아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셋째는 성년 이후에 제주에 정착해서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지역의 문제보다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다. 어디서부터 그 지역 작가라고 해야하느냐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크게 주소지 중심과 출신지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규정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출타인과 도래인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몇 살 때 출타했느냐’, 그 지역에 ‘몇 살 때 들어오고 이제 몇 년이나 되었느냐’ 이런 문제들이다. 성인이 되어서 출타한 경우와 유소년기에 들어와서 성인이 된 경우, 또 청년기에 들어와서 삶을 개척하고 한 세대인 30년을 넘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그 지역 작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시기에 그 지역에서 성장했거나, 청년기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 삶을 개척해가면서 1세대를 넘게 살았다면 그 지역 작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데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부모의 고향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출타인인 경우 유소년기에 출타하고, 부모의 고향인 그 지역에 자주 출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서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이웃해 있는 지역에서의 이동은 이런 문제와 관계가 없다. 제주 지역인 경우는 정서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이웃해 있는 지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성장 시기나 부모의 고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도래인인 경우 그 체류 기간이 길어도 농업이나 어업과 같은 공동작업이 아닌 전문적 성향의 직업 등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공동체적 정서와 언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김병택은 제주 시인을 “제주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제주의 모든 현상과 사건을 체험한 시인”²²⁾으로, 또 정지창은 “지역의 문

다.”라고 하면서, 270쪽에서는 “문학 창작의 주체로서의 제주인은 제주의 문화와 풍토를 몸에 익힌 사람이다.”고 정리하고 있다.

22) 김병택, 「변방의 자연과 삶」(『한국현대시인론』, 국학자료원, 1995). 281쪽.

제라든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묘사할 사람은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작가"라고 하면서 "자기 지역의 문제라든가 정서라든가 삶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²³⁾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작가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지만, 그 지역 작가를 가르는 모든 기준은 획일화할 수 없으며 '언어'와 '정서'에 관련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역문학사의 한 축을 이루는 독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는 작가 문제와 유사하면서도 그다지 경직될 필요는 없다. 작가의 범위와 일치하면 1차적 독자로, 그렇지 않으면 2차적 독자로 유연하게 인식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고 1차적 독자는 중요시하고 2차적 독자는 등한시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지역문학사의 인식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따라서 오히려 2차적 독자들이 더 중요시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언어를 토대로 씌어진 작품의 경우, 1차적 독자에게는 읽힐 수 있어도 2차적 독자나 1차적 독자의 후손들에게는 고전문학을 읽듯이 주석에 의존해서 읽힌다면 이는 작가가 독자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지역적·향토적 특성이 훌륭하게 반영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2차적 독자들에게 쉽게 읽힐 수 없다면 이는 지역문학의 한계이자 작가의 한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2차적 독자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바람직한 예로 현기영의 「마지막 테우리」가 있다. 이 작품은 지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면서도 2차적 독자들에게 쉽게 읽힐 수 있게 조정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자울 자울'과 같이 동사의 수식을 받는 의태부사 같은 지역어는 그대로 구사하면서도 '건초'에 해당하는 제주어인 '출'이라는 말은 2차적 독자를 염두에 두고 그냥 '건초'를 사용하고 있는 점들이 그것이다. 또 김광협 시집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의 경우는 제주의 구어를 그냥 사용하고 별도의 표준어 해석을 병행하고 있다. 이 경우도 2차적 독자를 염두에

23) 정지창, 「지방화 시대의 지역문학(좌담)」, 25쪽.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독자의 문제는 지역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생산에 관여하기 때문에 독자에 대한 범주와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기존의 한국문학사 서술에서는 문학사의 한 축을 이루는 독자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역문학사에서는 독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기존의 한국문학사를 극복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독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자는 문학담당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산인 환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과 작가, 독자의 범위가 설정되면, 텍스트는 정해 지는 것인가. 지역문학사의 대상을 결정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²⁴⁾ 여기서 지역문학사의 대상인 문학작품을 1차적 자료와 2차적 자료 등으로 나누어 인식하여야 한다. 1차적 자료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문학이며, 2차적 자료는 세 가지로 나누어, '첫째는 지역문학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 지역 작가의 작품, 둘째는 그 지역 작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작가의 작품, 셋째는 외지인의 그 지역과 관련되는 작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지역문학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러한 기

24) 김영화는 작가에 대하여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제주인이 창작한 작품은 모두 제주문학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제주적, 향토적 요소가 있는 작품이 제주문학의 情粹에 들어간다."고 정리하고 있다.('현대문학과 제주문학', 270쪽)

현길언은 「설화와 제주문학」(제주대학교담라문화연구소 편, 「담라문화」, 15호, 1999. 229쪽)에서 제주문학을 "제주사람에 의해, 제주의 역사와 제주 사람의 생활, 제주언어에 의해서 형상화한(된) 작품이라는 식의 개념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그 범위 설정의 난맥상을 제시하고 있다.

소재영은 「한문학과 제주문학」(제주대학교담라문화연구소 편, 「담라문화」, 15호, 1995. 241~242쪽)에서 '첫째로 조선조 사화 당쟁과 관련하여 관각문인 지식인들이 제주에 유배되어 온 유배인의 작품, 둘째로 제주도에 목사, 관관 등 관인의 자격으로 입도한 사람의 작품, 셋째로 순수하게 제주에서 출생하여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과거에 급제하는 등으로 제주에 뚜렷한 문학적 발자취를 남겨 놓은 인물들의 작품'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²⁵⁾.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그 지역 공동체 삶의 총체성 위에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그 지역 공동체의 기원, 성장, 비대, 분화, 분열, 해체, 재구성 등과 관련²⁶⁾시켜 중층적·다원적 구조 위에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중층적·다원적 구조 속에는 그 지역 정서의 심층과 문제들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표층을 흐르는 역사와 '복류하는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이러한 역사 속에는 자연적·지리적 환경은 물론 사회적·문화적·정치·경제적 환경이 정화되어 약동하고 있다.

또 이러한 조건 위에서 지역문학의 갈래 체계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정서 및 소재 중심의 지역문학 갈래를 생각해 보면, '지역의 사건이나 역사²⁷⁾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 '삶의 터전²⁸⁾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 '사회의 분화와 변화²⁹⁾에 갈등하는 문학', '자연 재해³⁰⁾를 이겨나가는 문학' 등 그 지역 정서와 현실적 삶을 바탕으로 갈래 체계를 나누어 보

25) 김영화는 「현대문학과 제주문학」(258~269쪽)에서 제주문학을 '언어', '정서', '이야기', '소재' 등으로 나누고, 소재에서는 '실화', '역사', '자연 역사적 유적'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26) 지역이 비대해지거나 분화되는 원인을, 마에다 나리루미(前田成文)는 첫째 '자연재해, 전쟁, 파괴라는 파국적 압력에 따른 국면', 둘째 '모든 외문명의 수용', 셋째 '자생적, 내발적인 이단 소수파의 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화 과정에서 변화의 속도는 "생활세계의 수준이나 이단 소수파의 인식이 다수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과정은 가끔 장시간을 요구"하며 "시스템의 개조·변화에 의한 위로부터의 변화는 전체로의 파급"이 매우 빠르다고 설명하고 있다.(야노 토루 위음, 앞의 책, 340쪽).

27) '사건의 긍정적 입장의 문학, 사건의 부정적 입장의 문학, 사건의 양비론적 입장의 문학, 사건의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문학'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28) 제주지역인 경우 '산간 마을, 중간간 마을, 해안 마을, 화전민 마을, 농업 중심 마을, 반농반어 마을, 어업 중심 마을, 산복 마을, 산남 마을, 동쪽 지역 마을, 서쪽 지역 마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9) '정치적 변화, 경제적 변화, 문화적 변화, 발전적 변화, 타락적 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0) '바람, 가뭄, 호우, 폭염, 폭설, 병충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면 그 지역문학사의 문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문학사의 대상인 지역, 작가, 독자, 문학작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원론적 차원에서만 살핀 내용이어서 다소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기준이라기보다 요구에 가까운 주문이 될 것이다. 지역문학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서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문들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지역문학사의 지향점인 '전망'을 염두에 둘 때 지나친 요구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주문에 강제하는 경직된 인식 태도는 물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중앙 문단 중심의 경직된 문학사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문학사의 인식은 유연성 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역문학사 서술상의 과제

지역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문학사 서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문학사 서술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제기를 통하여 문학사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사의 서술은 문학사의 흐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설명적·교육적 서술로는 약동하는 문학사상을 보여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문제제기적 서술이거나, 문학사의 심층에 무엇이 숨쉬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지속적인 문학사를 서술할 수 있는 인식방법부터 모색되어야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문학사는 문학담당자 모두를 반영하지 못하고, 소수의 작가와 잡지 중심의 역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편협한 한국문학사는 문학담당자의 한 축을 이루는 독자의 의식을 제대로 반영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역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문학사는 이러한 측면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공동체의 기원, 성장 그리고 해

체의 과정을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학작품들을 제대로 읽어 내어 지역문학사 속에서 체계화시켜야 한다.

지역문학사는 인식의 체계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단순히 인식의 체계화만으로는 정적인 문학사일 뿐 동적인 문학사가 되지 못한다. 동적인 문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제기와 자극제로써의 역할을 통해 안정된 인식 태도를 고민하는 인식 태도로 전환시켜야 지역문학사는 생동하게 될 것이다.

지역문학이 바람직한 발전과 전승을 위해서는 ‘첫째, 아마추어 수준에 머문 글들이 거리낌없이 나돌고, 그에 따라 지역문학 연구가 그 질에 있어서 하향 평준화로 치닫는 현상’들을 극복해야 하고, ‘둘째, 지역연고와 지역 우월을 앞세운 질 낮은 정실주의’를 물리쳐야 하며, ‘셋째, 가치중립적이니 객관적이니 티를 내며 학문이라는 허울 아래 거둬지고 있는 무기력과 지체 현상에서 하루 바빠 벗어³¹⁾나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문학이라는 말은 더 이상 단순히 지역적 분류의 편의성만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니며, 지방적 피폐함과 지방적 수동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제의 실현이 전체 문학운동의 유기적 성과가 되는, 즉 잠정적으로 독자적인 운동의 단위로 설정될 수 있다는 현실성도 분명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³²⁾

지역문학사가 없어도 한국문학사는 존재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문학사가 없어도 지역문학사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지역문학사와 한국문학사는 서로 다른 존재의 원리가 있다. 때문에 지나친 특수성의 강조나 성급한 일반화는 지역문학사의 역기능을 불러 일으킬 우려를 안게 된다. 점진적인 변화론인 집성법(aggregation)을 통하여 여러 사례를 수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의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지역문학사를 바라보았을 때, 지역문학사의 상(像)은 그러

31) 박태일, 앞의 글, 125~127쪽.

32) 이강은, 「지역문학론의 개념적 역설과 현실적 긴장」, 『실천문학』 제40호, 1995. 235쪽.

지지만 개개의 문학작품에 대한 특수성이 무시될 우려가 있게 된다.

또 유구한 전통이니 하면서 과거를 미화하는 인식은 본질에 대한 가치판단에 방해가 되며 반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부조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아마 추어적인 연구 수준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문학에 대한 연구에 있어 우려되는 것들은, “중앙문화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 적대인식을 드러내고, 타지역과의 경쟁적 우수성 확보라는 논리로만 치달을 위협”과 “우리의 현실적 삶과는 무관하게 변방적 문화, 토속적 문화를 우리의 문화로 위장하여 강제하려는 자본주의 문화 상품화 전략에 무자각적 동조가 되어버리는 것”³³⁾이다. 또 “문학적 싸움들이 사소하게 국지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면 자칫 지역문학 운동의 역량 축적이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소모전으로 귀결되어 방향 상실을 초래할 염려가 많”으며,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성장해 온 진보적 문학운동들이 지역화의 담론 속에 무차별적으로 용해”³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지역문학사 서술상의 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역문학의 한 예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들 수 있다. 문학을 ‘입으로 쓰는 문학’과 ‘가슴으로 쓰는 문학’으로 나누었을 때,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입으로 쓴 문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소설은 카프가 완전히 해체된 직후인 1936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작가는 일제강점기 궁핍한 민족적 삶의 애환과 민족적 정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문장의 유창성을 통하여 서정적 분위기로 작품의 허전한 공백을 메우는 말재간을 부리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통찰력도 독자에게 전하려는 조그마한 메시지도 찾아볼 수 없다. 문학이 추구해야 할 내용과 그 사상을 방기하고 있음은 물론 내면성이나 정신성도 찾아볼

33) 위의 글, 237쪽.

34) 위의 글, 238쪽.

수 없다. 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 카프 계열의 작품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인정받고 미화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 광복 후에도 그 인식지평을 올바르게 열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문학사의 현실이다. 특히 몰래방아간에서의 성치녀와의 관계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천만의 사건이다. 그럼에도 이 소설은 이를 당연시하고 성치녀의 아픔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허생원의 인생 속에서 미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둘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상호적 관계가 아닌 일방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설이 국어 교과서나 문학 교과서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여 전 국민적으로 읽도록 강요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문학사 인식이 잘못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공간 배경이 “봉평”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이유로, 강원도 봉평에서는 이를 강원도의 지역문학으로 인식하고 메밀꽃이 필 무렵이면 큰 자랑이나 하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펼쳐 놓고 관광객을 모으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이는 지역문학에 대한 인식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중앙 중심의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빚어진 오류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이란 그 지역이 지닌 본질적인 특징에 의해서 나뉘는 것이다. 지명만 다른 지역 이름으로 바꾸면 강원도 문학이 될 수 없는 문학 작품을 과연 강원도 지역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문학이란 그 지역의 삶의 모습,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왔던 역사와 그 속에 숨쉬고 있는 정신을 그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문학사 인식과 서술의 과제는 기존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지역문학사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어떻게 펴 올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지역문학을 지역문학사의 관점에서 그 개념, 서술의 필요성, 인식 방법, 인식 대상, 인식상의 과제 등을 원론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지역문학사는 중앙문학사의 지방판이거나 현실문제를 외면한 위축된 부록이어서는 안 된다.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낡은 수공업적 서술이어서도 안 된다. 한국문학사는 실증주의니 객관적이니 하면서 매마른 역사에 열중하면서 역동하는 힘을 잃고 말았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역문학사에서는 그 동안 잃었던 역동하는 힘을 새롭게 살려 놓아야 한다. 지역문학사는 지역문학사로서의 독자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상징적 억압으로부터 충분히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앙문학사 인식 방법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문학과 지역문학사는 유동적·유연적 개념에서 매우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문학사는 이론 구축을 통하여 유행적 성향쯤으로 인식하는 회의적 시각을 일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 구축을 통하여 문학사의 근원이자 심층을 문제삼는 탐구적·논의적 문학사의 인식과 서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문학사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역, 작가, 독자, 작품의 범위를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태도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지역문학사가 생동하는 문제를 골간으로 하는 역동하는 문학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수준', '질낮은 정실주의', '지방적 수동성' 등을 극복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문학은 그냥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관을 가지고 인식해야 할 지역문학사의 대상이다. 지역문학이 거기 있고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들의 의지에 의하여 지역문학사의 상(像)은 그려지고, 또 이에 대하여 전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일 편,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1999.
- 김동윤,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탐라문화』 제20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9.
- 김병택, 『지역문학의 존재방식과 그 전망』, 『한국현대시인론』. 국학자료원, 1995.
-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연구』 제2호, 1998.
- 사람의 문학, 특집 『지방화 시대의 지역문학』, 『사람의 문학』 가을호, 1995.
- 실천문학, 특집 『지방자치 시대, 지역문학을 다시 본다』, 『실천문학』 겨울호, 1995.
- 야노 토루 엮음, 『지역연구의 방법』. 아시아경제연구회 옮김, 전예원, 2000.
- 양영길,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98.
- _____, 『김태준의 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백록어문』 12집, 1996.
- _____, 『임화의 한국 근대문학사 인식 방법 연구』, 『백록어문』 16집, 2000.
- _____, 『한국 근대문학사 구성 방법 연구』, 『영주어문』 2집, 2000.
- _____, 『문학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소고』, 『굴림문학』 3집, 1997.
- 이강은, 『지역문학론의 개념적 역설과 현실적 긴장』, 『실천문학』 제40호, 1995.
- 이광주·이민호 편, 『현대의 역사이론』. 한길사, 1993.
- 이민호, 『사회구조사학』, 『현대의 역사이론』, 한길사, 1993.
- 전경수,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청주문학, 특집 『21세기, 지역문학의 전망』, 『청주문학』 제10호. 2000.
- 최원식, 『지방을 보는 눈』, 『실천문학』 제40호, 1995.
-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 1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 하가·노보루(芳賀 登), 『地方文化의 保全』(呂博東·小林幸夫 共譯). 과학교육사, 1985.